

노동 : 민주화, 탈상품화, 환경 복원

기획특집 ①은 일터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16일에 발표된 성명서 「노동 : 민주화, 탈상품화, 환경 복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성명서가 발표된 배경 및 성명서 전문을 소개하고, 성명서를 주도한 세 학자 중 한 명인 Julie Battilana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하버드 가제트」 게재)를 함께 실는다.

차례

- 성명서의 배경 / 10
- 노동 : 민주화, 탈상품화, 환경 복원 (성명서 전문) / 12
- 사람과 지구를 위한 노동의 민주화 (인터뷰 기사) / 16

성명서의 배경¹⁾

이번 성명서는 2020년 5월 Isabelle Ferreras, Dominique Méda, Julie Battilana 세 명의 학자가 시작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 모델(model of 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에서 벗어난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 방식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성명서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 우리가 직면한 보건, 기후, 경제 및 정치적 삶의 위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규범이 된 원격 협업을 통하여 세 학자는 이번 팬데믹에서 노동 이슈에 대해 얻고 있는 교훈에 관한 논평을 작성했다. 논평의 목적은 이들이 발견한 핵심적 교훈, 즉 지금이 기업의 민주화, 노동의 탈상품화, 환경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있었다.

논평을 완성한 후에 이들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에 연락했고, 르몽드는 연락 받은 날로부터 15일 후인 2020년 5월 16일에 논평을 게재하기로 했다. 세 학자는 이 기간을 학계에서의 대화를 촉발하는 기회로 삼고, 5명의 여성 학자 Julia Cagé, Lisa Herzog, Sara Lafuente Hernandez, Helene Landemore, Pavlina Tcherneva와 논평을 공유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논의된 해결책들의 각기 다른 측면을 연구하고 있었다. 사회학, 철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분야를 대표하는 8인으로 구성된 이 핵심 그룹은 대화의 범위를 더욱 넓히기 위해 여성 학자들을 시작으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Katharina Pistor, Lea Ypi, Ingrid Robeyns, Elizabeth S. Anderson, Albena Azmanova, Adelle Blackett, Sakiko Fukuda-Parr, Eva Illouz, Rahel Jaeggi, Alison Jaggar, Serene J. Khader, Susan Neiman, Serena Olsaretti, Françoise Tulkens, Miriam Ronzoni, Debra Satz, Sarah Song, Elaine Unterhalter, Melanie Walker 등의 학자들이 열의와 지지를 표명했다. 지지자의 범위는 남성 연구자인 Dani Rodrik, Thomas Piketty, Tommie Shelby, Axel Honneth, Charles W. Mills, Olivier De Schutter, Gregor Murray, Brandon M. Terry, Alberto Alemanno, Raj Patel, Ha-Joon Chang, Joshua Cohen 등을 포함하게 되었고, 지구

1) 성명서의 배경은 성명서가 게시된 웹사이트 democratizingwork.org에서 발췌.

환경과학 분야(Pierre-Benoît Joly, Jean-Pascal van Ypersele, Jean Jouzel, Julien Barrau, Hans Herren, Pablo Servigne)를 비롯한 다양한 학계로 확대되었다.

논평은 곧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널리 공유되었다. 르몽드에 게재를 요청한지 불과 2주만에 전 대륙 700개 이상 대학의 5,0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이 글에 지지 서명을 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16일, 논평은 르몽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 36개국 43개 신문에 실렸다. 논평에 서명한 학자들은 이 글을 27개 언어로 번역하여 각 지역의 지연 및 온라인 신문을 통해 출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 주고자 할 때 학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2020년 현재, 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미래 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논평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과급되어 열렬한 지지를 받자, 핵심 그룹은 ‘노동의 민주화(Democratizing Work)’ 메시지가 전하는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그룹의 조직과 논평 번역에 특히 깊이 관여했던 여성 학자들, Adelle Blackett(캐나다 맥길대학교), Neera Chandhoke(인도 델리대학교), Imge Kaya Sabanci(스페인 IE 경영대학원), Flavia Maximo(브라질 오루프레투 연방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아래에서는 성명서 「노동: 민주화, 탈상품화, 환경복원」을 소개한다. 성명서의 한국어 번역본은 『국제노동브리프』 이번 호에서 처음 소개한다. 한국어 외의 27개 언어(2020년 8월 18일 기준)로 번역된 성명서 원문은 democratizingwork.org에서 볼 수 있다.

노동 : 민주화, 탈상품화, 환경 복원 (Work: Democratize, Decommodify, Remediate)

노동하는 인간은 ‘자원(resources)’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아픈 이를 돌보고, 음식·의약품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식료품 점에서 물건을 채우고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을 지속시켜주는 이들이야말로 노동이 단순히 상품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인간의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전적으로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이 박탈될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삶과 미래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기업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을 탈상품화하는 것이다. 팬데믹과 환경과 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이룬다면 지구상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힘을 이끌어내고 모든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민주화인가? 남녀 가릴 것 없이, 특히 소수 인종의 구성원과 이주민 및 비공식 경제 종사자들은 격리 상태에서도 지낼만한 여력이 있는 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 이들 직업의 존엄성은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라는 웅변적이고도 간결한 용어가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이 용어는 자본주의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이라는 용어 뒤에 숨어 늘 감추고

자 했던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단지 여러 자원 중 하나가 아니다. 노동 공급자가 없다면 생산도, 서비스도, 사업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격리 중인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집에서 일어나 밤까지 근무한다. 이들은 감독 없이는 직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믿으며 감시와 외부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단지 이해 당사자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열쇠를 쥐고 있음을 밤낮으로 보여준다. 노동자는 기업의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지배구조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참여권은 자본 투자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 전체가 위기의 시기에 노동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로 응하는 것이다. 점차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최저선(income floor)을 높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후, 부인할 수 없는 여성들의 사회 공헌은 여성이 참정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할 때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에서는 종업원평의회(Work Councils)라는 제도를 통해 직장 내 노동자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기구도 기업지배구조에서 기껏해야 미미한 정도의 발언권을 가질 뿐이며 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 이 기구는 환경파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기적인 자본 축적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지도, 심지어 늦추지도 못한다. 이제 노동자 대표기구에도 이사회가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최고 경영진)에 대해서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대변하는 회의체로부터 이중의 과반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노동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이후 다양한 형태의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업 내 실질적인 시민권을 형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노조의 조직과 권리가 상당히 억압된 미국에서조차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자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CEO 선임, 주요 전략 수립 및 이익 배분 등은 주주에게만 맡겨 두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들이다. 개인의 노동 투자, 즉 개인의 몸과 마음, 건강, 개인의 삶 자체를 투자하는 일에는 이러한 결정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왜 탈상품화인가? 지금의 위기는 노동이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시장 기제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수년간 보건 부문의 일자리와 공급은 수익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좌우되어 왔는데, 오늘날 팬데믹은 그 원칙이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특정한 전략적·집단적 요구는 수익성 원칙에 영향받아서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절대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뼈아프게 상기시켜준다. 이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는 이들은 그들의 위험한 사상으로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삶에 관한 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의 탈상품화는 이른바 ‘자유 시장’의 법칙으로부터 특정 부문을 지켜내고, 모두에게 노동과 노동이 가져다주는 존엄성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자리 보장제(Job Guarantee)의 도입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자리 보장제는 각 개인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직면한 여러 시급한 사회·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고용이 보장되면 정부는 지역 사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 민주사회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U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럽 그린딜(Green Deal)에 포함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의 사명을 재검토하여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이 프로그램의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면, 유럽중앙은행은 모든 EU 시민의 삶에서 정당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일자리 보장제는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에 대한 경기조정 방안으로서 EU의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환경 복원. 이제는 2008년 경제 위기 때처럼 무조건적인 긴급 구제를 감행하여 공공 부채를 크게 부풀리던 순진한 대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현 위기에서 정부가 기업을 구하고자 나선다면, 기업 역시 나서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각 정부가 받드는 이

넘이자 정부의 구성 기반이기도 한 민주사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지구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야 할 책임에 따라, 각 정부는 기업의 일정한 행동 변화를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엄격한 환경 기준 준수에 더하여, 기업이 일정한 민주적 내부 운영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환경파괴에서 환경 복구와 재건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노동을 투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자본 투자자들과 동일한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현행 체제하에서 노동, 지구, 자본 수익을 저울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오랜 기간 충분히 목격했다. 노동과 지구는 항상 뒷전이였다. 케임브리지대 공학대학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달성 가능한 설계 변화(achievable design changes)”로 지구의 에너지 소비를 73%까지 줄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Cullen, Allwood, and Borgstein(2011), *Envir. Sci. & Tech* 45, pp.1711-18).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노동집약적이며 때로는 단기간에 높은 비용이 드는 선택이 요구된다. 기업이 자본 투자자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한, 에너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과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전환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사회적·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복합적 목표를 추구하며 민주적인 내부 운영을 지향하는 등, 일부 사회적 의식이 있거나 협동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이미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의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 자본 투자자들의 뜻에만 맡겨 두면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개의치 않을 것이고 환경 재앙에 맞선 싸움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기업을 민주화하고, 노동을 탈상품화하며, 인간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멈춤으로써 이 지구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데 함께 집중해야 한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노동의 민주화²⁾

Nora Dekaney (하버드 케네디 스쿨(Harvard Kennedy School) 커뮤니케이션 팀장)

Julie Battilana³⁾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그의 전 세계 동료 학자들은 일하는 방식을 재고하는 임무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여러 국가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이들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절박하게 호소했다.

조직이 어떻게 긍정적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Julie Battilana 교수는 일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Julie Battilana 교수와 협력자들은 기업의 민주화, 노동의 탈상품화, 환경에 유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촉구했다.

Julie Battilana, Isabelle Ferreras(벨기에 루뱅 가톨릭대학교 및 하버드법학대학원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Dominique Méda(프랑스 파리 도핀대학교)는 전 세계 대학의 5,0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공동 서명한 논평을 집필했으며, 여기에는 하버드대학교와 제휴를 맺은 대학이 40곳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평은 2020년 5월 16일에 36개 국가 40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논평을 소개하는 웹사이트(<https://democratizingwork.org/>)와 해시태그(#democratizingwork)도 생겨났다.

일에 대한 담론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목표였다. Julie Battilana, Isabelle Ferreras, Dominique Méda는 Julia Cagé(프랑스 파리정치대학), Liza Herzog(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교), Pavlina Tcherneva(미국 바드대학), Hélène Landemore(미국 예일대

2) 이 글은 2020년 5월 19일 하버드대학교 관보 「하버드 가제트(The Harvard Gazette)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로, 코로나19 확산의 최근 동향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한 '코로나 업데이트(Coronavirus Update)' 시리즈의 일부이다. 전체 시리즈에서 역학(epidemiology), 감염증, 경제학, 정치학 및 기타 학문 분야의 하버드대학교 전문가들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 기사 원문은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020/05/experts-lead-the-charge-in-rethinking-how-we-work/> 참조.

3) Julie Battilana 교수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사회 혁신+변화 이니셔티브(Social Innovation + Change Initiative)의 창립자 겸 교수협회장이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Alan L. Gleitsman 사회혁신 교수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Joseph C. Wilson 경영 교수이다.

학교), Sara Lafuente Hernandez(벨기에 브뤼셀대학교) 등 5명의 여성 학자들과 힘을 합쳤다. 사회학, 철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분야를 대표하는 이 핵심 그룹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학계 여성들을 시작으로 수천여 명 학자들의 공동 서명을 받았다.

「하버드 가제트(The Harvard Gazette)」는 Julie Battilana 교수와 함께 노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과 논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HKS) : 어떤 계기로 노동의 민주화에 대한 논평을 쓰게 되셨습니까?

Battilana : 우리가 이 논평을 쓰게 된 건 단지 보건위기(health crisis)라고만 할 수 없는 현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사회 조직, 경제 및 정치에 존재하는 심각한 균열과 취약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는 이들과 타인을 위해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필수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wealth),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한 가정에서의 상당한 사회적 불평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코로나19 확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날 더욱 확대되고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은 일시적인 경제 중단을 가져왔고, 인간이 오염을 줄이면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경제 재가동을 준비함에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구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현 위기는 변화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옹호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더욱 회복력 있고 평등하며, 건강하고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과 조직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논평의 목적은 이러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만, 고려해야 할 방안을 모두 나열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논평이 우리의 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에 집단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HKS : 당신이 학계에 논평을 배포했을 때 공동 서명을 원하는 학자들의 호응이 굉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글이 그렇게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십니까?

Battilana : 저는 변화의 정치학(Politics of change)을 연구합니다. 제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현 상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동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시위(Occupy Wall Street) 사례가 그렇습니다. 당시 시위는 매우 효과적으로 현 상황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동요(agitation) 이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주도면밀한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2008년에 이미 학계를 포함한 전 세계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시민과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지금의 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게 많은 학자가 이 논평에 서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동요를 넘어서 혁신과 조직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대대적으로 사회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더욱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일과 조직의 방식을 개발해왔습니다. 학계는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해 더 광범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정부 및 기업들과 공조함으로써 우리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논평에서 우리는 혁신, 즉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 및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해결책이 전부는 아니며, 이 논평이 여러 다른 맥락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 상황에서 효과를 거둔 방안이 다른 모든 경우에도 적용되리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HKS : 당신은 이 성명서를 전 세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다룬 이슈들이 어떠한 면에서 보편적이라고 보십니까? 일의 미래에 접근하는 데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나요?

Battilana : 지금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또한 이 위기는 각국의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는 보편적인 이슈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으며 그래서 안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위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재정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에 맞춘 새로운 법적 장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 내 전략적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과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자들이 이사회(supervisory board)에서 공식적인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에서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Dominique Méda,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논평의 초안을 작성한 Isabelle Ferreras 교수는 하버드법학대학원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내외에서 노동자 대표제 및 노동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와 Sana Marin 핀란드 총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 수반들은 건강과 행복을 성공의 주요 지표 및 자국 정부의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자국민의 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정책은 실업 충격에 대처하고 각 노동자(gig workers), 비공식 경제 종사자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HKS : 노동을 민주화하고 탈상품화하는 동시에 환경 복원을 촉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Battilana :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여전히 이익 극대화가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합니다. 대대적인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시급하며 이는 상당한 노력과 결정 및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는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현 위기에서 벗어나는 동안,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제와 문화도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더 나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성과와 함께 노동자 복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최선의 의도를 가졌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환경과 사회적 목표를 잃으면 어려움을 겪

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조직은 민주적일수록 성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실행 가능한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길임을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HKS :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Battilana :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권한(power)에 대한 책을 집필 중입니다. 권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권한을 갖고, 누가 갖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위계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 투자자를 여전히 최상위에 두고 노동 투자자인 노동자를 최하위에 두는 강력한 위계체계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저의 책에서 저와 공동 저자 Tiziana Casciaro는 우리 개인으로서 권한의 위계체계에 도전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기업은 관행을 바꾸고, 정부는 법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논평이 그러한 집단행동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일단 개인이 어떤 쟁점에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쟁점에 따라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본 논평은 두 가지 사명을 지닙니다. 첫째는 기업의 민주화, 노동의 상품화, 환경 복원 필요성에 대해 학계의 힘을 규합하고 학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길 바라는 시민, 정부, 기업,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 기업들에 손을 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노동의 민주화와 탈상품화, 지구의 복원에 기여하는 변화를 조직해 나갈 수 있습니다. 